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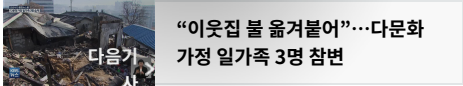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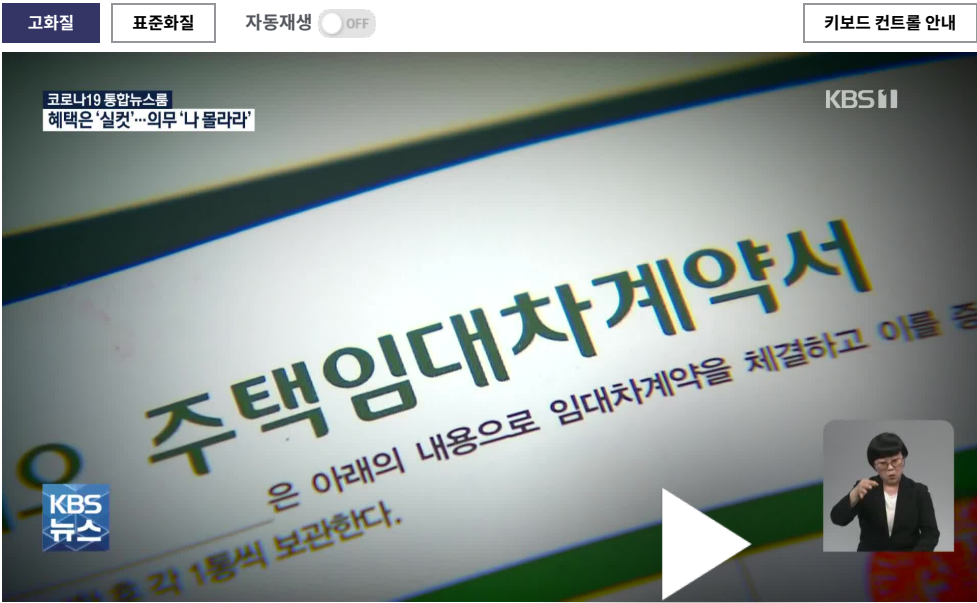
건조 주의보: 서울, 경기(광명·과천·부천·동두천·연천·포천·가평·고양·성남·안양)

## 혜택만 ‘실컷’ 의무는 ‘나 몰라라’…암체 임대사업자

입력 2021.01.31 (21:20) | 수정 2021.01.31 (21:56)

뉴스 9

가



[앵커]

등록 임대사업자,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정해진 기간 동안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적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정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뿐 아니라, 중부세 합산배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임대무기간을 지켜야 하고, 임대료도 직전 임대료의 5% 내에서만 올려받아야 합니다.

이런 혜택을 덕분에 2017년 98만 가구였던 등록 임대주택은 3년만에 60% 넘게 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자들의 공적의무 준수인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정부가 조사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위반 사항 적발 규모가 3천7백 건에 육박했습니다.

세제혜택만 챙기고, 세입자는 나몰라라 하는 이 뻔뻔한 갑질, 임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보

재난포털

ON AIR

이 시각 헤드라인

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6%… 19대 보다 3.5%p ↑

이재명 후보 자택, 지금 상황은?

윤석열 후보 자택, 지금 상황은?

‘NLL 월선’ 북한 선원 7명, 북으로 송환…“항로 착오로 넘어와”



많이 본 뉴스

- 1 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6%…19대 보다 3.5%p ↑
- 2 이 “수천, 수백 표로 결과가 달라져” 윤 “투표율 기대에 못미쳐”
- 3 “경북·강원 산불 났는데”…‘제주들불축제’ 어찌나?
- 4 [특보] 이 시각 산불 상황과 바람 전망
- 5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 6 ‘NLL 월선’ 북한 선원 7명, 북으로 송환…“항로 착오로 넘어와”

## [리포트]

50대 A 씨는 2017년 서울 성수동의 한 아파트를 6억 원에 샀습니다.

그러면서 8년 장기임대로 내놓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채 3년도 안 된 지난해 5월, 10억 원에 팔아 4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 위반입니다.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됐고 임대 등록은 말소됐습니다.

세무당국의 조사도 받게 됐습니다.

[국토부 조사 담당자 :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다 받아왔으면서 양도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물건을 양도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적발됐거든요."]

이렇게 임대 의무기간 규정을 위반해 정부 합동조사에 적발된 사례가 3천7백 건에 육박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자신이 들어가 살거나, 5%로 정해진 임대료 상한을 무시하고 1,000% 넘게 올린 사업자도 있었습니다.

혜택만 챙기고 의무는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에서 위반 사항이 집중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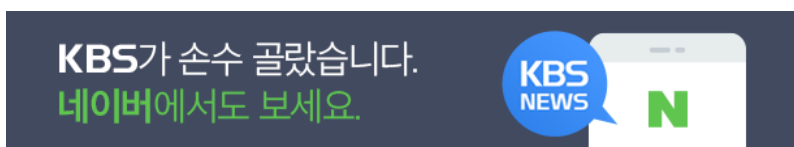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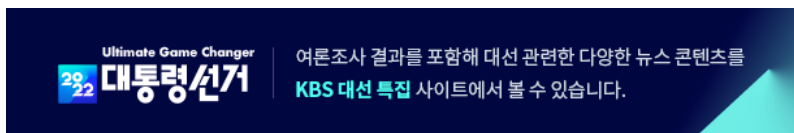
위반 등록임대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혜택을 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소득세, 양도세 등이 추정됩니다.

[김정선/ 행안부 지방세 특례제도 과장 : "말소된 주택 건에 대해서는 지방 세무 부서에서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추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도 등록임대 공적 의무 위반 사항을 집중 조사할 예정인데, 특히 임대료 증액 상한을 지켰는지, 임대차 계약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채상우 최창준



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임재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오늘의 HOT클릭!



절반만 찍히거나 겹쳐 찍었어도...선관위 “모두 유효표”



[20대 대선 인증샷] 내 손으로 뽑는 대통령 “투표했어요~”



신규 확진 34만여 명 역대 최다...누적 500만 명 넘어서



“경북·강원 산불 났는데”...‘제주들불축제’ 어쩌나?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영상] “특정 후보 연상시킨다?” 투표 도장까지 바꾼 사연

울진·삼척 산불 옛새때...전체 진화율 70%

피치, 러시아 신용등급 C로 강등...“국가부도 임박”

중국 매제, 한국 대선 각별한 관심...“누가 이기든 한중관계... ‘정확하고 재미있게’...미리 보는 KBS 개표방송

지역뉴스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대구	안동	포항	광주	목포
순천	전주	대전	청주	충주	춘천	강릉	원주	제주

뉴스 아카이브 ▼